



“孝” 적극 실천하세요... 지난 2일 곡성군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지역 할머니들이 복을 두드리며 제13회 곡성효문화대축제의 개막을 알리고 있다. 이번 축제는 6일까지 계속된다. <곡성군 제공>

# 여수민속전시관, 공립박물관 등록 추진

### 신청서 제출... 道, 최종심사 후 이달말 결정 향토·민속자료·국제 교류품 등 361점 보유

여수시가 첫 공립 박물관 등록을 추진한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읍촌면 가장리 읍촌중앙초교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여수민속전시관(사진)에 대해 공립 박물관 등록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개관한 여수민속전시관은 1층 2개동 563㎡(전시면적 333㎡) 규모의 한옥 건물로 내부에는 향토·민속자료 및 국제교류품 361점이 전시돼있다. 시는 민속전시관을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수장고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 전라남도에도 박

물관 등록 요청을 마치고 지난 9월 박물관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와 박물관 협의 등의 자문검토와 전남도의 최종 심사를 거쳐 법정기한인 이달 말까지 박물관 등록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박물관 등록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되는 정부합동평가 문화활성화분야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립박물관 등록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문화수준을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된다”면서 “전라좌수영의 분거지로서 지역 입관유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공립박물관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의 공립박물관 등록은 이번이 처음이며, 사립박물관은 여수 엑스포해양공원 내 아쿠아플라넷 한 곳이 지난해 등록된 바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여수시의회 임시회 추가예산안 등 18건 처리

여수시의회(의장 박정재) 임시회가 4일부터 11일 동안 여수시 의회에서 열린다. 3일 여수시의회는 “제151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4일 오후 2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간의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 이후 10일부터 3일 동안 예결특위에서 추가경정안 심사를 맡는다. 14일 2차 본회의에서 201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건 등 각종 안건과 예결위 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안 등을 처리한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지난달과 이달 초 오천산단과 화양농공단지 내 주요 업체를 방문, 오페수처리시설현황과 악취 민원 발생 현황을 정취한 바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꿈을 날다”

### 인간동력항공기 경진대회... 오늘 고흥항공센터 일원

인간의 힘으로 지상을 활주·이륙해 비행하는 인간동력항공기 경진대회가 4일 오전 6시30분 고흥 항공센터 및 활주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회·주관하고 전남도와 고흥군이 후원한다. 이 대회는 지역 항공산업 발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지난해 전남도와 고흥군이 항공센터 일원에 유치한 행사로, 지난해 11개 팀이 참여해 시범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도 서울대 등 국내 항공 관련 대학 8개 팀, 고교 2개 팀, 항공우연 1개 팀 총 10개 팀이 참가해 2차례씩 비행을 실시한다. 체공 상태에서 400m의 거리를 비행한

시간이 가장 짧은 순서로 순위가 결정되며 우승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1500만원이 주어진다. 정순주 전남도 경제과학장은 “인간동력항공기 경진대회는 미래 산업을 주도할 창의적 과학인재 육성은 물론 지역에 대한 다양한 관광, 레저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간동력항공기는 비행기에 장착된 프로펠러를 기계적인 동력장치가 아닌 사람의 힘만으로 양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다. 조종사의 근지구력과 비행체의 우수한 공기역학적 설계 및 초경량화 기술이 필수적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첫 입주업체 선정

### 지성·금호피엔비화학

광양항 서측배후단지에 첫 입주할 우선협상대상 기업 2개사가 정해졌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3일 “최근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입주기업 공모로 지성, 금호피엔비화학 등 2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에 응한 7개사가 제출한 사업 능력과 화물유치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2개사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성은 그동안 수도·충청권 등에서 비어있는 상태로 광양항으로 모이

던 컨테이너를 활용해 제지, 코일 등을 광양물류센터로 운송·수출할 계획이다. 금호피엔비화학은 현 여수국가산단 공장 부지에 위치한 물류보관창고를 광양항 배후단지로 옮겨 광양항 이용화물을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리고 물류보관창고 부지에는 공장을 증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제조·물류업 단지인 서측배후단지 전체 부지 100만㎡ 중 잔여 부지 83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집공고와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4079@

# 전북

# 부안 음식점 ‘참뽕초’ 쓴다

### 특색있는 먹거리 개발... 郡, 빙초산 대체 보급

부안군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빙초산을 대체할 ‘참뽕초’의 보급에 나섰다. 군은 3일 “비용의 추가부담을 감수하고도 빙초산 대신 참뽕초를 사용하겠다는 희망 음식점 3곳을 선정해 인증업소 표지판과 함께 참뽕초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참뽕초는 지난 2011년 오디뽕 농가

새소득원 창출을 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오디뽕산학연협력단이 공동 개발한 참뽕가공식품이다. 이번엔 인증업소 3곳이 추가 지정되고도 빙초산 대신 참뽕초를 사용하겠다는 희망 음식점 3곳을 선정해 인증업소 표지판과 함께 참뽕초를 공급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참뽕초는 생과로 공급하고 남은 오디 잔여 물

량의 소비에 대해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횃집을 중심으로 일반식초 대신 참뽕초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부안만의 특색있는 먹거리 개발과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이달말 개관하는 참뽕연구소 가공시설(HACCP 인증)과 연계해 새로운 참뽕초와 초고추장, 소스류 등을 개발한 뒤 ‘참뽕초연구회’ 등 가공 업체에 제조법을 전수할 방침이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 지자체장 전방위 수사... 지방선거 변수로

### 장수·진안·순창군수 수사 부안군수 직권남용 재판 중

검찰과 경찰이 전북도에 자치단체장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단체장은 비리가 확인되면서 처벌 가능성이 커져 내년 지방선거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은 장재영 장수군수가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2008년 추석과 2010년 5월 지방선거 전에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해 30일 사전수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일단 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사 지휘를 내렸지만, 추가 증거나 혐의가 나오면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13일 진안군수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 비서실장이 공무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7억여원을 관리해온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순창군수와 고창군수도 수사하고 있다. 남원지청은 지난달 27일 순창군수

실과 황숙주 군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황 군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확보했다. 황 군수는 2011년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에게 역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읍지청은 같은 날 이강수 고창군수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지역 건설업자에게 군 부주사업의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아 기소된 6급 공무원과의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이 군수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밖에 김호수 부안군수가 2008년에 공무원 서열·평점 조작 등에 관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강완목 전 임실군수는 건설업자에게 8000여만원을 받아 재판 32개월만에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부안자연생태공원’ 새 관광명소로 부각

부안 자연생태공원이 준공돼 관광 명소로 부각하고 있다. 부안군은 3일 김호수 군수, 김춘진 국회의원, 박찬호 군의회 의장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자연생태공원 준공식을 가졌다. 부안 자연생태공원은 지난 2011년부터 준공되면 생태공원로 170번지 일원 41만5325㎡에 총사업비 102억 4000만원을 들여 생태탐방로 개설, 생태체험장 조성, 유채·메밀·해바라기·꽃양귀비 등이 식재된 화훼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안 자연생태공원이 준공됨으로써 번산에서 진사를 거쳐 줄포까지 연결되는 관광벨트가 형성됨에 따라 부안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굳은 전망하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 김호수 군수는 “이번 부안 자연생태공원 준공으로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높이고 부안의 대표적인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지’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 “가마솥에 밥 짓기 어려워요”

지난 2일 김제 벽골제에서 개막한 지평선축제에서 어린이들이 아궁이에 불을 때 가마솥에 밥을 짓고 있다. 김제 지평선축제는 국내 최고의 농경문화 체험행사 6일째 3일째 67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제시 제공>

# 단신

#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85명 선발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정시모집을 통해 석사과정 85명을 뽑는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일반전형으로 42명, 특별전형을 통해 43명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8~10일 인터넷(http://www.uwayapply.co.kr)으로

만 진행하며 응시생은 14일까지 1단계 전형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심사 통과자는 심층면접고사를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의학전문대는 지난 5월 수시모집을 통해 25명을 선발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부안 주산·줄포·상서 3곳서 민민의 날 행사

3일 부안군 주산·줄포·상서 등 3곳의 면에서 민민의 날 행사를 가졌다. 주산면 체육회에서는 ‘함마을 함뜻’으로 하나된 주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19회 주산면민의 날 행사를 주산면체육회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는 줄포면민의 날은 부안자연생태공원에서 생태공원준공식과 함께 관내 기관사회단체

장과 출향인사, 주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또 ‘사랑과 정이 넘치는 상서’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3회째를 맞는 상서면민의 날 역시 지역주민과 출향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서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행사, 초대가수 공연 등이 열렸다. /부안=정재용기자 jiy0681@

# 이석면 정읍수박연구회장,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정읍수박연구회 이석면 회장이 전라북도에서 선정하는 제18회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농림수산분야에 선정됐다. 이 회장은 지난 40여 년간의 수박재배로 연 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성공 농업인이다. 지난 2011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11 대한민국 농업기술명인’ 중 재조작물

분야에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회장의 수박은 2007년부터 정읍시 대표 통합브랜드인 ‘정읍 단품미인 수박’이라는 통합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 회장은 2011년 전라북도 수박연구회 회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 남원 이백면 내기마을 이달중 상수도공사 착수

남원시는 이백면 내기마을 주민들의 음용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연내 수도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 공급을 위한 공사해 이달 안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또 상수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비상급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지하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홍보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지난달 23일 이백 내기마을 주민들이 음용하는 지하수에서 자연방사능물질인 라돈이 초과 검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앙부처에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을 건의하는 한편 질량관리본부에 암발병 역학조사를 촉구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